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깨달음의 수행자답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마음 중심의 종교이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종교이다. 불교와 불교의 신앙은 불교를 위해 신앙을 위해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희생되길 바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살아가듯 넉넉하고 당당하게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과 디딤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불교이자 신앙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신앙은 사닥다리에 올라가듯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바뀌어 마음이 열리도록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여덟 가지길(八正道)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의 덕목으로 여섯 가지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六波羅密)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바른 불교, 바른 신앙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지식층들의 외면 아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 경전 중심에서 이탈해 목탁 불교로 기울어져 거래하는 신앙으로 변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 담긴 불교가 순수불교라면 사찰경제가 우선인 목탁불교가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망가지는 잡식(雜食)신앙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천도의식인 49재 경우 한 두 시간의 종교의식에 5백만 원, 1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개선 되어야할 문제이다. 불교TV와 방송에서도 사찰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광고성 실력 없는 출연자로 하여금 불교의 가르침을 어둡게 하는 부끄러운 형태는 과감히 벗어나야한다.

출가(出家) 수행하는 스님들이 해마다 생일상을 신도들로부터 받고 있다면 이는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사라져야할 풍습이다. 거기다가 승려의 장례식장에서 한 판 벌리듯 조의금을 접수하는 풍경은 세속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겠다. 승려의 장례는 간소화 할수록 아름답다. 상여와 만장이 불교문화가 아닐진데 수행승의 가는 모습도 검소하게 단출하게 적멸(寂滅)의 마무리를 개운하게 교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옳은 것이다.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나 승려의 49재에 이르는 절차가 이 사찰, 저 사찰로 옮겨 다니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모습은 떠난 자의 뒷모습을 번거롭게 할 뿐이다. 거기다가 덕 높으신 스님일 경우 앞 다투듯 기념관을 만들어 가신 스님을 추모하고 있으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신 고인의 참 바람은 아닐 터이다. 출가 수행승이라면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철저함이 갖추어져야 한다.

주지 진산식도 사라져 가야할 부끄러운 전통임을 밝혀둔다. 출가할 당시의 초발심(初發心)을 잃지 않도록 채찍질하여 흔들리고 헐떡일 때마다 승려의 기본 덕목에서 이탈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학문 수행과 심성 수행으로 기본을 다지고 열린 불교의 열린 주인공답게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개운한 수행승으로 살 일이다.

육바라밀의 첫째 실천 덕목이 보시(布施)이다.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法布施)가 으뜸임은 누구나 익히 아는 상식이다. 제발이지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많은 보시 중 가장 으뜸은 '법보시'
염불·설법도 '무주상보시' 실천하길

승려의 목탁도 설법도 무주상(無住相) 보시를 실천하는 수행의 일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져야한다. 때와 곳도 가리지 않고 주지스님의 설법 뒤에 슬그머니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는 권선문이나 시주를 강요하는 듯 한 영험설화 따위를 앞세우는 구걸하는 듯 한 부끄러운 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한다.

진정한 법당은 내가 머무는 가정이며 영험 있는 부처는 내 가족이며 이웃임을 일깨워 줘야한다.

불교에서는 운명론을 거부한다. 신(神)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네 생활 주변에 널려있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불교는 어제를 위한 종교도 내일을 위한 종교도 아닌 오늘의 종교인 것이다.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에서 일깨워 주고 있듯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동, 서, 남, 북의 중앙에 있는 것이며 내가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임을 두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無位眞人의 경지를 내보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임제의현(臨濟義玄:?~867) 선사는 스승 황벽(黃蘗) 선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를 맞고 깨달음 얻었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스님이다.

매를 맞은 것이 도를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선수행 세계에 있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이다. 임제 선사의 행장(行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삼도피타(三度被打)라고 말하기도 한다. 임제 선사가 같이 공부하던 스님의 권유로 법을 물으러 황벽 선사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짜고짜 방망이에 스무 번이나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대를 맞았다고 한다. 그는 황벽 선사의 이러한 처사에 회상에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우(大愚) 선사를 찾아가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황벽 선사가 임제 선사를 친절히 가르쳤다는 대우 선사의 말을 듣고 확철대오하고 다시 황벽 선사에게로 돌아와 법을 이었다. 임제 선사는 나중에 중국 선종 중 가장 독특한 선풍을 드날렸던 임제종을 세우게 된다.

선사들이 남긴 말을 수록하고 있는 책을 일반적으로 〈어록(語錄)〉이라 부른다. 글자 그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다. 중국 선종의 선사들이 남긴 어록이 수없이 많다. 〈선종전서(禪宗全書)〉, 혹은 〈선장(禪藏)〉이란 이름으로 집대성 되어 편찬된 책들이 대장경 가운데 삼장(三藏)의 한 장(藏)을 훨씬 능가한다.

그 수많은 어록 가운데 〈임제록(臨濟錄)〉을 예로부터 '어록의 왕'이라고 불렀다. 어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록이라는 말이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따 끼더로(西田幾多郞)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에 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임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 중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는 말이 있다. 무위(無位)란 처해 있는 위치가 없다는 말로 상하(上下), 귀천(貴賤), 빈부(貧富), 범성(凡聖), 미오(迷悟) 등 어떤 지위나 차별이 없다는 말로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다는 뜻이다. 깨달음의 궁극적이 경지에 들어가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참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신의 정체가 파악되었을 때의 자기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다. 진인(眞人)이라는 말은 원래 〈장자(莊子)〉에 나오는 말이지만 임제에 의하여 선가에서 새롭게 제창된 말이다.

〈임제록〉에 의하면 어느 날 임제 선사가 법좌에 올라 말했다.

"벌거벗은 몸뚱이에 하나의 무위진인이 있어 항상 그대들의 면문(面門)에 드나들고 있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 "무위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임제 선사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말해봐라. 말해봐." 스님이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임제 선사가 잡은 손을 놓고 밀치며 "무위진인이라니!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하고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무위진인이 면문으로 드나들고 있다. 면문이란 얼굴에 있는 눈, 귀, 코, 입 따위의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여기에 무위진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속전등록〉 '원련전(元璉傳)'에는 이런 대화도 있다.

"무위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위는 나무요 아래는 철로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죄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재판관이 죄상을 적는 붓을 던져버렸느니라." 이에 묻던 스님이 절을 하였다. 참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대화다. 선은 알 수 없는 데서 시작되고 알 수 없는 데서 끝난다.

서산 대사의 〈선가구감〉에서 임제가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 놓았다.

"임제가풍은 맨손에 단칼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고금의 현요(玄要)를 가리고 용과 뱀을 주인과 손님으로 시험한다. 임제를 알려 하는가? 푸른 하늘에 벼락치고 평지에 파도가 일어난다."

임제 법문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말은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라. 서있는 자리가 진실하리라."(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견성한 사람의 본래면목에 대하여 설파해 놓은 말이다.

실다운 진리를 바로 보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⑰ 여리실견분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여래 하)
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 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 非
(이고 여래소설신상 즉비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
相 卽見如來 (상 즉견여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 여래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육신은 곧 육신이 아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우리들의 육신은 무량겁(無量劫)으로부터 시작된 망상, 아첨, 거짓. 잘난 체하고 뽐내는 분별망념들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육신입니다. 이런 육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육신이 아닌 때문에, 참 마음의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있음과 없음의 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은,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이 상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을 여의면 있는 것도 아닌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로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의 여래를 보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진정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과연 2500년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내는 중생이 있을까?

유전자 DNA와 제8아뢰야식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시간 우리들의 모든 반복적인 행위, 습관이 쌓여진 업의 창고입니다. DNA와 제8 아뢰야식이 어째서 업장(業藏)인가? 그것은 길다 짧다, 있다 없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업장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1초(秒)의 시간은 짧고 2,500년의 시간은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1초가 쌓인 것이 2,500년으로, 1초의 시간이 없으면 2,500년이 없고, 2,500년이 없으면 1초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초는 2,500년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1초는 2,500년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2,500년도 이와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보리 존자는 보살 10지 가운데 7지 보살로서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의 경계로, 길다 짧다, 있다 없다 하는 분별망념을 거의 여의었기 때문에 1초의 시간과 2,500년의 시간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1초의 시간도 마음이고, 2,500년의 시간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2,500년 후를 보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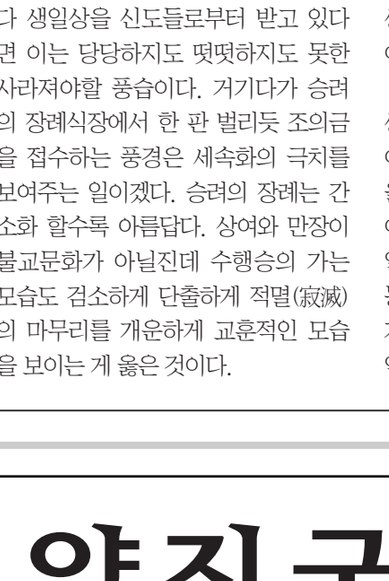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신통이라고 하는데, 분별망념이 다하고 분별망념이 다한 것도 없는 것이 6신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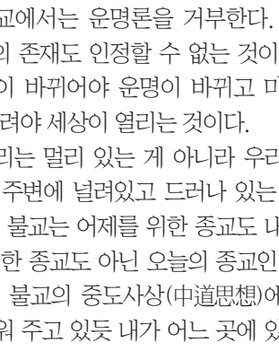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2,500년 뒤에, 그 누가 분별망념을 여읜 수행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금강경을 듣거나 볼 때,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며, 일체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굳게 믿는 신심(信心)을 내어 진실하게 여기고, 분별망념을 여읜 선근(善根)이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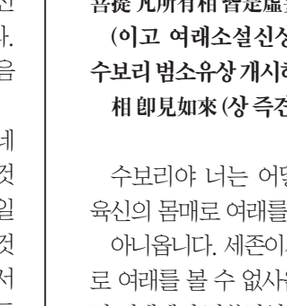
싫어하는 망념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있고 좋아하는 깨달음은 망념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망념과 깨달음은 있는 것이 아니고, 망념은 깨달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고 깨달음은 망념이 없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망념과 깨달음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바로 보는 것이 뗏목으로 생사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법도 버려야 하거늘 그릇된 분별망념에는 더욱 머무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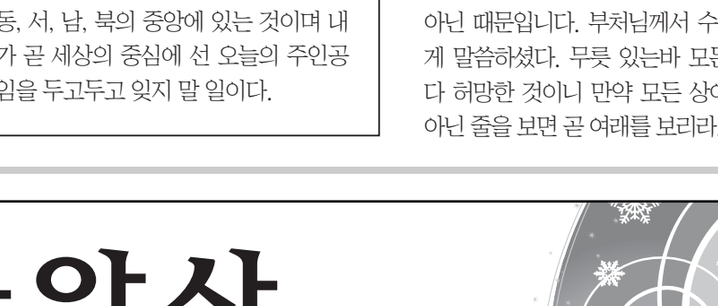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